

97.8.17. 기독교 신학 사상의 변천/각 시대의 질문들은 무엇이었는가?

예수(bc6/7-30.ad)/ “하느님 나라”는 어디에?

바울(35 회심-60?)/ 유대교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유대인 예수는 누구?

오리겐(185-251)/ (순교자의 아들) 희랍 문명과 기독교의 조화는 가능한가?

어거스틴(354-430)/ (“서방신학의 아버지”) “제도”(위계질서)로서의 교회와 개인구원의 관계는?

토마스(1224-1274)/ (절대 권력인 “교황청”의 자리 확보), “대학의 학과목”으로서의 신학 혹은 신학/신앙 속에 있는 “합리성”의 자리는 무엇인가?

루터(1483-1546)/ (“고전 복음”으로 복귀) (교황청 신앙/관행으로부터의) 크리스찬의 자유는 무엇인가? 개인의 구원은 어디서 오는가?

쉴라이엘마허(1768-1834)/ (근대신학의 아버지), “근대인도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?”  
기독교 신앙의 본질/기반을 물음.

중세인 — 제도 교회의 권위 & 천사와 악마, 귀신과 마녀를 믿음.

근대인 — 자연 질서에는 철두철미한 규칙이 있으며, 예외(기적)는 없다는 것을 믿음.

과학적 발견의 독자적 가치, 역사적 비판의 가치/필요성을 믿음.

바르트(1886-1968)/ “신정통주의”의 선구자, 양차세계 대전(특히 1차 대전).